

안 주시는 은혜

The Grace of Not Granting

고린도후서 12:7-1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1월 6일 설교

⁷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⁸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⁹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¹⁰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불평을 감사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선악과에 대해 불평하시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더라면 아담 하와가 그걸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이 죄에 빠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선악과를 “괜히” 만드셔서 가지고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나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지 그걸 안 만드셨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따금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시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요. 하나님한테 혼수를 둡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걸 보니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들었구나. 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부모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편 기가 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잘난 것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선악과가 언제 싫어집니까? 살기 힘들 때 싫어집니다. 살기 힘든 게 다 사람 때문이고 돈 때문인데 그게 따지고 보면 다 세상에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 안 해도 되고, 남한테 속을 일고 없고, 돈 때일 일도 없고, 마음상할 일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먹고사는 건 늘 버겁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정이 있고, 불의가 있고, 탐욕, 거짓, 착취, 배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것이 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살기 힘들 때 그런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나오지요.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불평을 감사로 한 번 바꾸어 보십시오.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 알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거기 있고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1. 분수를 깨닫는 은혜

은혜가 뭐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안 주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주시는데 안 주시는 거기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안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이걸 금지령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먹어라, 먹어도 좋다 하는 명령도 주셨는데 그건 허락이지요? 허락하고 금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허락은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 권한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허락하신 건 내 재량이라 굳이 명령으로 새겨둘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하셨는데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먹으라 하셨는데 안 먹는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지는 안 그렇습니다. 우선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금지령은 내 관할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 하신 걸 하지 않으려면 잠시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 우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안 된다 하시는 금지령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알고

그 분을 높이며 내 위치를 알고 나를 낮추게 됩니다.

안 주심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은혜는 이렇게 피조물의 신분을 늘 일깨우시는 은혜입니다. 분수를 알게 하시는 은혜지요. 사람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람인 이상 다 저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건 실수하셨네요!” 하고 지적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위에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도 만드신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는 걸 교만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그런 교만에 빠져 타락했듯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에 빠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주신 것을 깨닫는 은혜

금지령은 곧 안 주시는 은혜지요. 그런데 안 주시는 은혜 속에는 주신 은혜를 깨달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 주신 것을 볼 때마다 안 주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말고는 다 주셨다는 걸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금지령을 생각할 때마다 안 된다 하신 그 분의 권세를 생각합니다. 그럼 되는 건 내 힘입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그 분의 권세입니다. 안 된다 하신 그 분이 사실 다른 건 다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즐거운 과일나무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걸 마음껏 먹으라 하셨습니다. 꼭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니면 먹고 싶을 때마다, 이건 왜 못 먹게 하셨을까 고민하지 말고, 다른 건 얼마든지 먹으라 하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뭘 깨닫습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요. 안 아플 때는 모릅니다. 늘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도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아파 누우면 건강이 소중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늘 주시는데 몰랐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안 하던 감사를 아프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을 때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권한 아래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하와도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언급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볼 때는 언제나 그걸 통해 안 된다 하신 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사실은 다 그 분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실 때는 몰랐다가 괴로움을 당한 것을 계기로 지난 날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 77:1-15). 평안할 때는 몰랐던 것을 괴로움을 당해 깨닫습니다. 괴로움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다 주시고 하나만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제때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한 은혜를 입고서도 그제 은혜인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계기입니다. 안 주신 한 가지를 통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깨닫는 계기, 내가 받은 복을 확인하는 계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이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계기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행복하라고 한 가지는 안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걸 모르니 불행합니다. 즐기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 드립니다.

그냥 다 주셨으면 은혜인 줄 몰랐을 것을 한 가지를 안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그 안 주시는 한 가지 덕에 우리 삶이 온통 하나님 은혜로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3. 안 주시는 그제 은혜

안 주시는 은혜는 첫째 내 신분을 알고 겸손하게 하면서 둘째 내 삶이 온통 은혜인 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은혜는 안 주시는 것 그 자체로서 또한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금지령이지요. 이건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도 명령은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또 푸른 풀을 양식 삼으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동물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동물의 본능이 되어 동물은 오늘도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만 할 뿐 다르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금지령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도 주시고 이것저것을 음식으로 먹으라는 명령도 물론 주셨지만 거기다 더하여 이건 안 된다 하신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안 지키면 벌을 주겠다 하셨으니 이건 거역할 수도

있는 명령입니다. 본능처럼 무조건 지키게 되어 있는 명령이거나 지키는 게 아예 불가능한 명령이라면 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명령에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릴 자유가 사람에게에는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피조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는데 그 형상, 그 영광이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명령에, 안 주시는 은혜 속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금지령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흠을 빚어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창 2:7).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라서 동물과 다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으로 그냥 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 1:20, 24, 30; 2:19; 9:12, 15, 16; 겔 47:9). 흠으로 빚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새도 흠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금지하신 거니까 제한을 두신 건데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영광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두 주셨습니다. 안 된다 하신 그게 사람의 영광이요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에덴동산 한가운데 두셨지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한가운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곧 사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거기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던 것도 그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해 아무 제약도 없이 본능에 따라 잠시 꿈틀거리다 그냥 없어지는 동물과 달리,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니 먼 옛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주신 세 가지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은혜를 깨달은 걸 보니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신 그 은혜가 에덴동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니다. 사람들은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 곧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방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들은 못 누린 그런 특권만 누린 게 아니라 남들은 안 가진 고통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 표현하는데 뭘지는 잘 모릅니다.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잠시도 잊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늘 괴롭혀 온 골칫거리였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픔을 없애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했다 하는데 삼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횡수로 세 번이 아니라 정말 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네 삶에 딱 찼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은혜를 그리도 많이 주셨습니까? 쉽게 말해 안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선 그 고통이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교육도 잘 받은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를 위협한 것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큼니다. 남들 못 하는 체험도 했지요. 전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습니다 (벧후 3:15-16). 이 정도면 어깨에 힘 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에게 뭘지 밝히기조차 꺾끄러운 고통이었습니다. 교만은 곧 멸망이니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또 그 아픔을 계기로 자기 삶이 온통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전 15:10). 은혜 받은 줄이야 전에도 알았지요. 그런데 안 된다 하시는 순간 깨달았는데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놀라운 계시나 체험이나 표적, 기사, 능력도 은혜지만 (12절) 남들이 은혜로 생각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마저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시가 없었더라면 몰랐을 건데 가시를 주신 덕분에, 없애 달라는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신 덕분에, 차고 넘치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안 주신 그게 은혜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낮추셨으니 은혜, 또 삶이 하나님 은혜로 꽉꽉 찼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그것도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픔 그 자체, 안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은혜를 깨달으라고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픔 그 자체, 하나님께 없애 달라고 그토록 매달렸던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게 왜 은혜입니까? 먹지 말라 하신 명령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담겼다 말씀드렸지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아픈 거기, 내가 약한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 그 자체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미 많이 주어서 더 안 주어도 된다. 그 정도 아픔은 있어도 괜찮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아픔마저도 내 은혜다 하는 말씀이요 그 아픔이 진짜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요 결국 네 삶은 한 구석도 빠짐없이 내 은혜로 꽉꽉 찼다는 말씀입니다.

안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십니다. 안 주심으로써 구원을 주십니다. 재미있지요? 선악과고 뭐고 없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동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갖춘 사람은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한 가지를 못 먹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깨닫게 됩니다.

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주시는 거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전 1:26). 안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한정 낮아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몸이 약한 병자들, 장애인들, 돈 없는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소외된 사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던 세리와 창녀가 그래서 구원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내 약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와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 안 주신 은혜가 주신 은혜가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진짜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선악과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알았더라면 바보같이 걸어차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안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면서 안 된다 하시는 은혜, 안 주시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은혜의 중심이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니까? 사람을 속여 죄 짓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칫하면 은혜를 잃고 마귀 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안 된다 하신 그 열매를 따 먹으라 합니다. 손닿는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안 된다 하신 그게 은혜인데 마귀는 그걸 못 먹고 어떻게 은혜라 할 수 있느냐 하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선악과는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 속에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지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안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안 된다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안 된다 하셔서 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줄 깨닫게 하시고, 안 된다 하심으로써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동물은 못 가진 자유를 동물은 모르는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라 하십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그 빈자리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곧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전 첫 사람을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안 주셨습니까? 뭐가 안 된다 하셨습니까? 많지요. 돈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안 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주시니 기도하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좀 있다 싶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뭐 하러 하나님한테 손 벌리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안 주시는 하나님은 거꾸로 또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돈이 없어 괴로울 때마다 그렇게 돈을 안 주시는 데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자식들은 뭘로 교육시켰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돈만이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 드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사도바울처럼 건강을 안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주 아프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 이 알량한 건강도 은혜, 다 은혜입니다.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사탄의 사자가 내 마음의 선악과 곁에 서서 속삭이는 겁니다. 주신 건 몰라도 안 주시는 건 금방 압니다. 먹지 말라 하신 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뭘 안 주시는지 사람 따라 다르겠지요. 돈, 성공, 사람, 건강, 많을 겁니다. 이걸 왜 안 된다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안 주시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세상 논리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이 불평할 때 믿음은 감사하고 세상이 눈물지을 때 믿음은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안 된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이 보면 웃겠지요? 그런데도 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그걸 안 주시는 대신 안 주셔서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가장 값진 보화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아담 하와의 실패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안 주시는 그게 복이요 은혜인 줄 압니다. 주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핑계도 대면 안 됩니다.

죄가 없던 에덴동산에서도 안 주시는 은혜는 참 큰 것이었지만 죄로 찢든 세상에서는 더 빛이 납니다. 죄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심으로써 주시는 진짜 은혜도 그만큼 더 크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